



# 현장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 박멸사업 문제점

**전**국의 양돈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익숙해져 버린 돼지 콜레라, 양돈인 및 관련업계 그 동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음이 앞으로 몇 개월 뒤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자 적어 보고자 한다. 참으로 열심히들 해왔다. 양돈인은 기본원칙에 따라 열심히 해왔고, 관련업계도 여러 각도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로 양돈인의 자신감 결여이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가 수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올림은 물론 관련 업계의 지원과 자발적 기구인 비대본의 활동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적절한 지도와 통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런 동반자적인 의식으로 노력한다면 콜레라 박멸을 필두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사랑하는 돼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돼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돼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려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양돈은 경제적인 산업이다. 돼지 공장에서 돼지를 생산하는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규격품을 만들어 꾸준히 생산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최인규 수의사**  
(여주공방단 방역담당, 그린축산동물병원)

콜레라 박멸은 우리 양돈인 손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이다. 우리 양돈인은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 매사에 겸양할 줄만 알지 내놓고 자랑을 못하는 분들이다.

현재도 열심히들 하면서도 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이번 콜레라만은 단연코 박멸할



## ● 특집/돼지콜레라 박멸, 최종점검 8개월!

창출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돼지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성으로 키우고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돼지를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우리의 식탁에 위생적이고 맛있는 식품으로 각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는 식품으로써 양돈산업이 꾸준히 살아남을 것이다.

본인은 농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돼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양돈을 사랑하는 수의사로서 이런 업종을 택했다고 얼마 전 까지만해도 그랬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거래쳐 농장을 방문하면서 진정으로 돼지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본인처럼 돼지를 사랑하는 것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런 사랑이 아닌 돼지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었다.

말 못하는 돼지에게 욕설이나 매질은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밥을 먹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어미돼지를 정성껏 일으켜 세우고 음식물을 손수 먹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주사기만 들고 있는 수의사인 나의 모습과는 정말 달랐다.

돼지들이 놀랄까봐 혹은 성장발육을 위해 본인도 이해 못

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게 해주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돼지를 향한 근간의 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니 각종 질병은 어떠한가? 철저한 원칙에 의한 기초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정확한 예방접종, 형식에 그치지 않는 철저한 소독, 그리고 충실하고 적정한 온·습도, 환기 등의 환경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돈가의 급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향한 마음의 투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한 분들이 더 많은 줄 믿지만 본인은 진정으로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다. 먹고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진심으로 먼저 돼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콜레라 박멸은 더 손쉬운 것이 아닐까요?

### 셋째로 기본 원칙에 충실하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본이 부실하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망가지기 쉬우며 온갖 부정 부패가 들끓는 사회가 되는 것처럼 콜레라 박멸에 있어서도 전 양돈인이 정말로 생산자나 관련 업계 할 것 없이 기본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각종 구호나 기금으로나 기타의 것으로 생색내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농장 출입시 형식적인 소독실시가 아닌 철저한 소독을 통하여 질병 전파의 주 매개체라는 오명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며, 농장에서는 예방약 보관에서부터 접종 시기, 접종 방법 그리고 돈사입구에서부터 콜레라 원인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방심하여 행여 당장은 발병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넷째로는 질병 발생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

그 동안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라와 유사한 질병이 발생시 신속히 알려야 한다.

비대본의 방역단이나 관계기관에 알려서 원인파악으로부터 역학 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내려져 더 큰 피해가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돈은 혼자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며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 아



●농장에서는 예방약 보관에서부터 접종시기, 접종 방법 그리고 돈사입구에서부터 콜레라 원인이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표1〉 예방접종 요령

예방약 보관	접종 시기		접종 방법
○냉장 온도체크	모돈	분만 후 15일경 (연1회이상)	귀 뒤 근육 깊이 주사 주사침 길이 19개이지로 3cm이상
○냉장고는 주변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위치		웅돈	봄, 가을
	자돈	40일령, 1차접종	주사침 길이가 2cm이상인 것을
		60일령, 2차접종	선택하여 귀 뒤 근육주사

◎ 백신은 희석하여 가급적 빠른 시간내 사용하고 건강한 돼지에게만 접종  
 ◎ 돈사 입구에 차량소독 및 발판 소독조 비취하고 철저한 소독실시하여, 외부인의 차량이나 개인 출입시 방역 개념 고취

님을 깨닫고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적절한 보상과 함께 질병 확산방지 및 통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다섯째로 농장이 정리되는 곳이 통제가 되어야 한다.

농장 경영 상태가 부실하여서나 관리 여건이 힘들어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돼지 정리가 진행되는 곳에는 우선 감독기관이 파악을 하고 농장에 있는 돼지가 건강한 돼지임이 증

명되고, 여타의 예방접종이 충실히 시행 됐음이 확인되어질 때 모돈이나 자돈이 정리되어 일선 농가에 입식 되어지거나 도축장에서 도축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위축돈이나 폐사 직전의 모돈을 매입하는 업주들도 관리기관에 의해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 어느 하나라도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콜레라를 검색하는 관계기관이 한곳에서 집중

관리되어 현안 문제점들의 가닥을 추수려 주면서 관리하는 것은 질병 통제에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 동안 정부기관에서 곳곳에 고급인력과 고급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에 병성 감정 기관이라는 간판을 걸어 주었지만 상호보완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아쉬워 보이며, 현재처럼 콜레라 박멸에 있어서 단계별 계획 중에 예방접종의 항체가 양성률에 평가를 내려 흥분하기보다는 시급히 병원성 검사가 이루어져 차등화된 농장관리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야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가 인지를 분별 할 수 있는 감별 예방약이 보급되어 관계기관의 관리하에 농장의 방역상황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콜레라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에서는 콜레라 박멸에 대한 현황을 정확한 통계로 홍보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박멸의 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양돈인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콜레라 박멸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곁에서 머지 않아 이루어 내는 현실이 될 것이다. **양돈**

